



해녀와 심방, 세찬 물살 건디는 그들 위해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
제주 잠수굿 '해' 전주 공연
제주무용예술원 예담 제작
잠수굿·한국무용 결합 시도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 잔여 혹은 잠수라고 불리는 해녀, 제주해녀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세대 간 전승되는 물질 기술, 바다의 여신인 용왕 할머니에게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잠수굿, 서우젓소리와 해녀노래 등을 포함하는 유산이다.

제주해녀문화를 무대 공연으로 꾸준히 빚어온 제주무용예술원 예담이 이번엔 제주 잠수굿 '해(海, 水+人+母)'를 제작해 전주로 향한다. 이달 8~10일 열리는 국립무형유산원의 2021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에서 인류무형유산 공연으로 잠수굿을 펼쳐놓는다.

이달 9일 오후 1시 국립무형유산원 일주마루대공연장에서 선보이는 '해'는 근대의 경계에서 제주 정체성을 대표하는 해녀 생업

문화의 정수인 잠수굿과 한국무용을 결합시킨 작품이다. 고춘식 예담 대표가 총감독(공동연출, 안무)으로 나섰고 한진오 극작가가 대본을 썼다.

여섯 마당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각각 완결된 형식을 띤다. 굿의 사전의례를 춤으로 형상화한 '서곡-소지 쥐음'을 시작으로 초감제, 새도림, 요왕맞이 등이 잇따르는 동안 '분향돌춤', '도전춤', '삼선향춤', '가락춤' 등 제주도 굿춤을 원용한 작품들이 올려진다. 무용을 맡는 한명정 김남희 이영주 등과 제주칠머리당영등극 김영철(삼방, 공동연출), 신순덕, 신복만 이수자 등이 출연한다.

예담은 이 공연에 대해 "제주 특유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온 제주사람들의 전통적인 삶의 면면이 낱알이 소멸되는 중에도 여전히 제주다운 삶을 이어오는 이들이 해녀와 심방"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소멸의 물살에 휩쓸려 이질마저 사라지고 나면 예술적 보존과 재현 또한 무색해질 것"이라는 말로 위기에 처한 존재들의 안녕을 바라는 또 다른 굿관심을 전했다.

진선희기자

고재만의

계곡이김관

<271>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골맨. "경호현, 뒷날 날 아침이 남지 않은 알카를 사는 여자를 돌려 집을 나섰지. 길은 멀어 생각 저 생각 허명 가단 보난 어느정도에 집 주지 못하겠지. 뉘이 이진 담 우이 무신게 이진 이 보난 어제 여자 아오 발모게기 차메나 옷꿈이랑게" 골맨이 골맨. "계민 남지 않은 여자 아오네 집이 먼 오라신계양." 존네 골맨. "여자 아오 아픈 발이 다 좋은 생인계양? 경호현 무신 거라도 붕가 보낸 집을 나산 거 다행게마음. 부지런도 후다." 하르바지 골맨. "아니여, 발이 다 좋은 안 후엿주만 하르바지 먹을 걸 구해준 뉘 무실터레 가사네. 춤 부지런한 아오주."

* 제주어 풀이

- *알카를(알가름,알녀가름,알녀카름) : <이름> 한 마을 안에서 편의상 '아랫쪽 동네'로 나눠 부르는 말.
- *돌려 집을 나섰지 : 데리러 집에서 나왔지.
- *어느정도에 : 어느새.
- *발모게기(도랑불기, 발모가기, 발모가지, 발모쟁이, 말뚝, 발뚝) : <이름>발뚝.
- *차메나(짜메나, 짜메나, 차메나, 차메나, 차메나, 차메나) : <음직>아픈 자리에 약을 바르고 형질 따위를 대고 끈으로 단단하게 묶다.
- *무신 거라도 붕가 보낸 : 무엇이라도 주워보려고.
- *부지런하다(부지란하다, 부지런이) : <그림> 부지런하다.
- *춤 부지런한 아오주 ; 춤으로 부지런한 아이지.

고재만 화백

가을날에 듣는 제주 섬 금빛 선율

제주윈드 정기연주회
제주·유럽 관악곡 조명

티벳밴드에서 출발해 제주 관악을 이끄는 민간 연주 단체로 활동해왔다. 임대홍(사진)이 지휘하는 제주윈드오케스트라가 제주국제관악제 여름 시즌의 추억을 이으며 제주 소재 관악곡과 유럽 작곡가들의 관악 작품을 조명하는 무대를 펼친다. 이달 11일 오후 7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는 열네 번째 정기 연주회를 통해서다. 이날 공연에서는 2020년 제주국제관악제 창작곡인 이승후의 '영동항랑', 고관수 부산시립교향악단 오보에 수석이 협연하는 하이든의 '오보에 협주곡', 홀스트의 '해머스미스',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주한다. 홀스트의 작품

은 제주 초연 곡이다. 관람료 무료. 제주윈드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제주국제관악제에서 세계적 관악 작곡가들과 호흡을 맞춰 대표작을 연주했다. 프랑크 티렐리(미국), 야곱 드한(네덜란드), 만프레드 슈나이더(독일), 안 반 더 루스트(벨기에) 등이다. 2005년 8월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제주국제관악제 10주년 기념 '서울에서 만나는 제주국제관악제'를 열었다.

진선희기자

문화가 쫓지

신축항쟁 120주년 학술대회

신축항쟁 120주년기념사업위원회가 이달 8일 오후 2시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상명대 주진오 교수의 '신축항쟁에서 제주 4·3으로' 기조 강연과 '저항의 제주 역사로 본 신축항쟁'(박찬식), '비어있는 사실과 재현으로서의 기억-속음청사', '이재수 실기', '변방에 우짖는 새'를 중심으로 '이동현', '광무연간 제주도의 부세제도와 부세수취'(허원영), '천주교회를 중심으로 바라본 신축교회의 발생원인과 현재의 평가'(김선필) 발표가 이뤄진다. 문의 758-0331.

서귀포시 '베라벨 책정원'

서귀포시에 있는 8개 공공 도서관에서 이달 9일부터 14일까지 주제가 있는 '베라벨 책정원'이 펼쳐진다. '베라벨 책정원'이 열리는 도서관(괄호 안은 주제)은 삼태봉도서관(명작), 중앙도서관(섬·치유), 동부도서관(만화), 서부도서관(그림), 기적의도서관(제주신화), 성산일출도서관(환경), 안덕산방도서관(여행), 표선도서관(제주바탕)이다. 리플릿 스탬프로 5개관 이상 책정원 관람이 확인되면 마지막 방문 도서관에서 굿즈(소진 시까지)를 제공한다. 제주도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등 참고.

네 번째 국제해양예술제

해양도시 제주의 이미지를 시각 예술로 풀어내는 2021 IOAF 국제해양예술제. 4회째인 올해는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갤러리카페 지오에서 '생명·해양·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을 뚫고 기획된 이번 전시에는 290점이 나왔다. 제주에서는 고예현, 고재만, 김지환, 목정훈, 문장배, 박린준, 박지혜, 박창범, 박한중, 부서연, 부윤자, 양계실, 양원석, 오승익, 이수진 작가가 참여했다. 해외 작가들의 작품은 디지털 영상으로 제작해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어르신그림책 원화 전시

에비사회적기업 (주)책여우가 청년 기획자 김민선씨와 함께 '호프 골아뵈서'를 주제로 어르신그림책 그림 전시를 열고 있다.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 공생(남성로 138)에서 이어지는 이번 전시엔 2016년부터 설문대 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한 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를 통해 출간된 어르신그림책 속의 캐릭터들을 펼쳐놓았다. 9일 오후 5시에 강성보, 강복자, 신진옥 어르신 작가가 참여하는 낭독회가 예정됐다. 낭독회 관람 사전 예약 등 책여우 인스타그램 참고. 문의 749-0070.

미술·공예 만나는 도심 아트페어

제주아트디자인페스타 내일부터 컴퍼트리호텔

미술과 공예가 만나는 미술시장이 제주 도심에 선다.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제주공항 인근 컴퍼트리호텔엔리조트에서 열리는 '제주아트디자인페스타 2021'이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아트디자인페스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아트페어는 미술·공예 두 부문 큐레이터가 작가와 작품을 선정해 30채의 리조트 안팎에 전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치른다. 미술 전시는 '섬, 소리(Island, Voice)', 공예는 '섬, 바다(Island Body

은 Somebody)'를 각각 주제로 내걸었다. 참여 작가는 강형구, 박서보, 유근택, 한성필, 정찬희, 조대웅 등 미술 92명, 공예 82명이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비율이 30%에 달한다. 이들은 자신의 작품이 놓일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미 제작한 작품을 재해석하거나 전시 장소에 맞춰 새롭게 작품을 창작했다. 출품작은 미술, 공예 총 1200여 점으로 모바일 리플릿으로도 소개된다. 관람 가능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4일간에 걸친 오프라인 행사가 끝난 뒤에도 올해 말까지 메타버스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수축상
CONGRATULATIONS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이상순
(前 이도2동 새마을부녀회장)

제25회 노인의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친정 형제·자매 일동

수축상
CONGRATULATIONS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김순자
(대한노인회 제주지회 애월읍분회장)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대한노인회 애월읍분회
고내리경로당 회원 일동**

수축상
CONGRATULATIONS
국민훈장 석류장

강창익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장)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국가 발전과 노인복지를 위해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지 회 장: 김창익 고 문: 고문현, 오광현, 진두호 명예회장: 홍명표
부지회장: 송대원, 강능자, 고병주, 김정숙 자문위원장: 한성윤
분 회 장: 김근선(대정읍), 고병주(남원읍), 강중훈(성산읍), 김우현(안덕면), 고광식(표선면), 양학림(영천동), 강태전(동홍동), 이순열(대륜동), 김정숙(대천동), 이경윤(중문동), 김명윤(예래동)

노인대학원장: 노상준 노인대학장: 정문후, 김정현, 김순이, 고성호, 한성윤
강 사: 김대승, 장경성, 동대표회장: 박동진, 한태원, 허중호, 김성근, 김찬기, 김충만
사무국장: 오남선 직 직원 일동

수축상
CONGRATULATIONS
유통혁신상

위미농협(조합장 김영근)

농협중앙회 함께하는 유통혁신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위미농협 임직원 일동